한국禪 1200년

선 전래 역사와 사상적 특징

부처님 마음법 한반도에 오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서당지장의 법을 받아 백장사에서 선법을 펼치고 있던 백장회해(百丈懷海). '하루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는 선농일치의 전통을 세운 그에게 해동에서 온 승려가 가르침을 구하며, 자신을 찾아온다. 해동 승려의 지극한 구도열에 감복한 백장회해는 이렇게 감탄한다.

"강서의 선맥이 모두 동국으로 돌아가는구나.(江西禪脈, 總屬東國之僧歟)"

당대의 선지식을 감탄하게 만든 해동의 승려는 바로 한반도에 선법을 전한 '해동 달마' 도의국사다. 그의 구도행은 한반도 선 전래의 중요한 전기가 된다.





사진 위는 821년 신라로 귀국한 도의국사가 머물며 은둔하며 수행한 진전사 전경. 이곳에서 도의국사는 40여년을 수행하며 제자 염거에게 법을 전했다. 염거는 보조체징에게 선법을 전했는데, 체징은 전남 장흥 가지산 보림사서 '가지산문' 을 개창하고 본격적으로 도의가 전한 선법을 펼쳤다. 사진 아래가 가지산문이 있었던 보림사 전경.

도의국사의 당나라 구법행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불교의 교세도 확대된다. 당시 신라불교는 교종 중심이었는데 특히 화엄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도의국사 신라 귀국 선종 흥기 계기
손상좌 체징 가지산문 열고 법 펼쳐

선종의 첫 전래는 4조 도신 선사의 법을 이은 법랑 스님을 들 수 있다. 최치원이 쓴 '봉암사지 증대사적조탑비' 비문에 의하면 "법랑이 중국으로 건너가 도신의 법을 이어왔다"고 기록돼 있다. '단속사신행선사비' 에는 법랑이 제자 신행에게 법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 법랑의 행적이나 사상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남아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한국선의 초조를 도의국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의국사의 생애 전기에 대한 기록은 〈조당집〉 17권 '설악진전사원적선사전' 이 유일하다. 〈조당집〉에 나온 도의국사의 생애를 살펴보면, 도의국사는 북한군(北漢郡, 현 서울) 사람으로 성은 왕(王)씨다. 도의국사의 부친은 임신 전 흰 무지개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모친은 고승을 친견하는 태몽을 꾸었다. 보름 후 태기가 있음을 느끼고, 39개월 만에 도의국사를 낳았다.

출가한 이후 784년(선덕왕 5년)에 사신들과 함께 당나라로 가서 수학했다. 도의국사는 광동성 광주 보단사에서 구족계를 받았고, 조계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곳에서 신이한 일이 있었다. 도의국사가 육조 혜능의 조사당에 참배를 하려고 하니 문이 저절로 열렸고 삼배를 올리고 나오니 문이 닫혔다.

비슷한 사례가 사굴산문을 개창한 범일 선사에게도 전해지는데 前 동국대 교수 성본 스님은 "도의국사나 범일선사가 한결같이 육조 혜능의 탑을 참배하고 똑같이 신이의 상서가 일어난 사실을 전하는 것은 신라 선종이 혜능의 선불교를 계승한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도의국사는 강서 홍주 개원사(현재 우민사)로 가서 마조도일의 수제장인 서당지장의 법을 얻었다. 서당지장은 '돌더미에서 옥을 얻은 듯, 조개 속에서 진주를 주은 것' 처럼 기뻐하며 "진실로 법을 전한다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전하랴"고 말했다. 이후 도의국사는 백장회해를 찾아가 감탄의 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본 스님은 "서당지장의 선법을 이은 4인 중 3인이 신라 구법승 도의와 홍척, 혜철이었다는 사실과 그 중에서도 도의선사는 서당의 선법을 전해 받은 인물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는 조사선의 선구자인 마조의 선법이 신라로 전래된 사실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선 전래와 구산선문 형성

이렇게 서당지장의 법을 이은 도의국사는 821년(헌강왕 13) 당나라 유학길에 오른 지 37년만에 신라로 돌아온다. 신라 귀국 후 행적은 최치원이 쓴 '지증대사적조탑비' 에 기록돼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도의국사는 귀국 후 자신의 선법을 펼치려 했으나 당시 신라 불교의 주류였던 교종들은 이를 '마구니의 교설(魔語)' 이라고 비난하며 배척했다. 결국 도의국사는 설악산 북산 진전사에 머물면서 40년동안 은둔 수행했다가 제자 염거에게 법을 전하고 원적에 들었다.

도의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염거 스님도 시절인연이 도래하지 않음을 알고 수행에 전념했고, 제자 보조체징에게 법을 전했다. 육조혜능-남악회양-마조도일-서당지장-도의국사로 이어진 선법은 보조체징 대에 가서야 비로소 한반도에 꽃을 피워낸다. 보조체징은 전남 장흥 가지산 보림사에서 가지산문(迦智山門)을 열고 크게 선풍을 펼쳤다.

이처럼 선법을 배운 선지식들이 한반도 곳곳에 선문을 세운다. 선을 한반도에 가져온 것은 도의국사이나 나말여초에 형성된 구산선문(九山禪門)의 시초는 홍척이 세운 '실상산문(實相山門)' 이다. 홍척은 826년에 귀국해 지리산서 선법을 전했는데 '북산의남악척(北山義南岳陟)' 이라고 부를 정도로 교화력이 있었다.

이에 홍척이 실상사를 창건하고 선법을 크게 선양하게 됨에 따라 실상산문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그곳에서 교화한 제자는 수백 명에 이르며, 흥덕왕과 태자 선강(宣康)이 귀의하기도 했다. 홍척의 귀국은 도의보다 늦었지만 신라에 선문이 개산된 것은 이 실상산파를 효시로 보아야 한다.

고려와 조선의 선 문화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 초기에는 선불교가 크게 유행했다. 태조 왕건은 선종뿐만 아니라 교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대각국사 의천이 구산선문에 대한 비판적 안목에서 천태종을 세우고 선교회통(禪敎會通)을 도모하고자 했고, 선종의 세력은 점점 약해졌다.

고려 중기에 이르러 선종을 진흥시킨 선지식은 보조국사 지눌이다. 지눌은 팔공산 거조사에서 정혜결사(定慧結社)를 결성했으며, 1200년(신종 3)에는 송광산 길상사로 옮겨 11년 동안 수행에 힘썼다. 희종은 지눌이 거처하는 송광산 길상사에 친서로 제방(題榜)을 내려 '조계산수선사(曹溪山修禪社)' 로 고친 후 이곳을 엄격한 수도도량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지눌은 "부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선이요, 부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교라고 믿었기 때문에 선과 교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선교합일을 주장했다.

고려代 간화선 전개… 조선代 유지
'선교겸수 · 삼문일치' 강조 특징 보여

고려 후기의 선종을 꽃피운 고승으로는 복구 · 보우 · 혜근 등이다. 특히 보우는 임제종을 도입해 새로운 선문의 조류를 형성하며 고려 말기의 불교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구산선문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건의했고, 간화선으로 후학들을 지도했다.

조선시대의 선종은 고려 말기의 고승 가운데 보우의 계열이 중심을 이루게 됐다. 조선시대 선지식 휴정은 선과 교의 병행보다는 선과 교의 기초 위에 조사선을 지향하는 사교입선(捨敎入禪)을 천명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선종의 법맥을 잇고 있으면서도 선만을 중요시하지 않고 선과 함께 교학과 염불에도 크게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련의 전래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선 만의 특징이 나타난다. 가장 먼저 확인되는 특징은 선교(禪敎)일치와 삼문(三門)일치다. 역사 내 선사들은 전반적으로 선을 바탕에 두고 교를 일치시켰다. 수행법에 있어서는 염불문(淨土)과 원돈문(敎), 경절문(禪)을 모두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선과 바라밀행이 하나되는 선행일치 사상을 통해 자리이타의 대승불교 이념을 실천해내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조계종 前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조계종은 선을 표방하지만 다양한 교리와 수행법이 존속돼 왔다. 하지만 조계종의 근간은 선(禪)이고 수행을 통해 해탈한 선사들이 있어 면면을 이어갈 수 있었다"면서 "눈 밝은 선지식의 배출은 조계종의 힘"이라고 봤다.

